

곽도규 263.6% '↑'·정해영 3.6억원



곽도규 황동하 윤영철 한준수 <KIA 타이거즈 제공>

우승팀 KIA, 44명과 연봉 계약...1차 스프링캠프 출발

'3,300만원→1억2천' 곽도규, 구단 역대 투수 최고 인상률 '예비 FA' 박찬호·최원준, 4억원 돌파...부상 이의리 동결 곽도규 이어 윤영철·황동하·한준수도 첫 '역대 클럽' 가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5 시즌 연봉 재계약을 대부분 완료하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주축 선수들의 큰 폭 인상과 신예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KIA는 더욱 탄탄해진 전력으로 올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할 전망이다.

KIA 구단은 22일 "202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44명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단연 '슈퍼스타' 김도영의 연봉 인상이다.

KIA가 전날 미리 발표한 대로 김도영은 지난해 1억 원에서 구단 역대 최고 연봉 인상률인 400% 오른 5억 원에 재계약하며, 팀 내 비 FA 재계약 대상자(외국인 선수 제외) 중 최고 연봉자가 됐다.

투수진에서는 '수호신' 정해영이 지난해 연봉 2억 원에서 80% 오른 3억6천만 원에 재계약했다. 팀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낸 정해영은 이번 계약으로 투수진의 중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오프시즌 트레이드로 영입한 조상우는 지난해 3억4천만 원에서 17.6% 오른 4억 원에 사인했고 '불펜 핵심' 전상현도 1억7천만 원에서 76.5%(1억3천만 원) 상승한 3억 원으로 크게 몸값을 끌어올렸다.

내야진에서는 박찬호가 지난해 3억 원에서 50%(1억5천만 원) 인상된 4억5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고, 외야수 최원준은 2억2천만 원에서 1억8천만 원(81.8%)이 인상된 4억 원에 재계약했다.

두 선수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다. KIA 입장에서 두 선수를 붙잡아야 내년 시즌 이후에도 전력 유지가 가능하기에, 이번 연봉 협상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FA를 앞둔 선수들의 연봉 인상은 통상적으로 이듬해 F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KIA가 두 선수에게 보내는 '리브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재계약에서는 신예들의 약진이 돋보

였다. 곽도규와 윤영철, 황동하, 한준수가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투수 곽도규는 지난해 3천3백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263.6%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KIA 역대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곽도규는 이번 계약으로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투수로 더욱 발돋움할 전망이다.

선발 투수 윤영철은 지난해 9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33.3% 인상되며 마운드의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대체 선발 투수 역할로 이범호 감독의 걱정을 덜어준 황동하는 3천5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올 시즌 또 한번의 대활약을 예고했다.

호랑이 군단의 미래를 이끌 포수 한준수도 5천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으로 180% 상승하며 역대 연봉 클럽에 합류했다.

이로써 KIA는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투수 김사운을 제외한 44명의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연봉 협상은 단순히 선수들의 몸값을 정하는 것을 넘어, KIA의 2025시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핵심 선수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젊은 선수들에게는 뚜렷한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단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KIA는 올 시즌 팬들에게 더욱 짜릿한 승리와 감동을 선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선수단과 함께 색다른 추억 만들어요"

KIA, 내달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 선착순 30명 모집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KIA 구단은 22일 "오는 2월25일부터 3월1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프링캠프 팬 투어는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선수단을 응원하고, 연습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다.

참가비는 성인 190만원, 어린이(2013년 2월26일생~2023년 2월25일생)는 171만원이다.

이번 팬 투어 프로그램은 연습경기 두 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 함께 하는 행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팬 투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선수단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여행'과 '선수단과의 만찬 행사'가 포함돼 있어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장내MC 김영호 씨가 동행해 행사를 진행하며, 팬 투어 참가자 모두에게 스프링캠프 모자와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나눠준다.

이번 팬 투어 모집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 투어 대행사인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팬 투어에 대한 문의사항은 KIA 타이거즈 팬투어 전담부서(1577-697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의 빛, 아시아 무대를 밝혀라"

광주FC, 2025시즌 신규 ACLE 유니폼 공개...내달 3일부터 판매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 무대를 누릴 신규 유니폼을 출시했다.

광주는 22일 골스튜디오와 함께 제작한 2025시즌 ACLE 유니폼 'Light of Glory Season 2'를 공개했다.

'Light of Glory Season 2'는 리그 유니폼과 같이 '빛'을 메인 컨셉으로 해 광주만의 상징과 의미를 표현했다.

유니폼 전면에는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고급 인쇄 기법인 승화전사 기법으로 빛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삽입해 광주의 정체성을 녹여냈고, 뒤편 넥라인에는 'Light of Glory' 문구를 삽입해 지난해 아시아

무대에서 빛났던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유니폼 디자인은 통일성을 강조했다.

홈 필드 유니폼은 구단의 상징색인 옐로우 컬러에 써드 컬러 네이비를 조합했고, 버건디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어웨이 필드 유니폼은 화이트 컬러와 버건디 컬러의 색채 대비를 통해 세련된 느낌을 극대화했고, GK 유니폼은 각각 그레이 컬러와 민트 컬러로 리그 유니폼과 동일한 컬러로 출시된다.

ACLE 유니폼은 내달 3일부터 구단 및 골스튜디오 온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2025시즌 ALCE 홈 유니폼(왼쪽)과 원정 유니폼(광주FC 제공) 통해 판매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지한다. /박희중 기자



"장성 장애인체전 역대 최고 대회로"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성군, 1차 대표자회의 개최

오는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D-100을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2일 장성군 남면문화센터에서 도내 22개 시·군과 21개 경기단체 등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최계획, 참가요강 협의, 기관별 업무분장, 경기용기구 등이 논의됐다. 장성군은 전남체전TF팀을 구성해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참가 요강 및 신청 방법을 전달했다.

장성군은 이번 대회를 역대 최고 대회로 치러나겠다는 각오로 21개 종목 경기

장을 확정하고 경기장 인근 숙박업체와 식당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보수를 진행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달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선수단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참가 희망 선수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종 점검 중이다.

서정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장애인체전 최초로 야외 개최가 진행되는 만큼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체육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내년 2쿼터 시행, 외국인 선수 4명으로 연장은 11회까지만...KS 편성 '2-3-2'로

프로야구, 이렇게 바뀐다

국내 프로야구에 2026시즌부터 아시아쿼터 제도가 도입된다.

KBO는 22일 규약 및 리그 규정 개정을 다룬 2025년 제1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쿼터 제도의 도입이다.

KBO는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기준 아시아 국적 전체와 호주 국적 선수를 대상으로 팀당 한 명씩 아시아 쿼터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며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쿼터 제도 선수를 합쳐 4명을 모두 한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을 시즌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항 중에서는 연장전 이닝 축소도 큰 변화 요인이다.

KBO는 "2025시즌부터 정식으로 피치 클러크 시행되면 투수들의 체력 소모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시즌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을 11회까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시즌 규정도 바뀐다.

먼저 포스트시즌에서 우천 등으로 시작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하기로 했다. 노게임 이닝 경우 풀드는 선택지에서 사라진다.

서스펜디드 경기가 발생하면 일시 정지 이닝과 관계 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르고, 기존에 편성된 경기는 다음 날로 미뤄진다.

또 한국시리즈 진출팀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2-2-3(정규시즌 우승팀 홈-플레이오프 승리 홈-정규시즌 우승팀 홈) 형식으로 2-3-2 방식으로 변경한다. /연합뉴스

아시아쿼터 폐지·홈그로운 제도 도입

K리그, 이렇게 바뀐다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5시즌 프로축구 K리그는 26개 구단 체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확대 등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5시즌을 앞두고 K리그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뀐 규정을 21일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5시즌을 앞두고 K리그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바뀐 규정을 21일 발표했다.

K리그, 2팀별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

외국인 선수는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는 최대 6명을 등록할 수 있고 4명이 동시 출장할 수 있다.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에 동시 출장은 4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아시아 쿼터와 동남아시아 쿼터는 모두 폐지됐다.

선수 안전을 위한 뇌진탕 교체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3월 국제축구연맹(IFAB)가 뇌진탕 교체 제도를 승인한 데 따른 결정이다. /연합뉴스

각 팀은 기존 교체 카드 수와 무관하게 경기당 1명씩 뇌진탕 교체를 할 수 있다.

또 경기중 어느 한 팀이 뇌진탕 교체를 쓰는 경우 상대 팀도 기존 교체 인원수와 무관하게 1명을 추가로 교체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 시행 여부는 팀 의뢰인이 결정한다.

홈그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 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프로 최초 입단 해를 기준으로 직전 3년 연속, 또는 총 5년 이상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 선수는 외국인 쿼터가 아닌 국내 선수로 인정된다.

프로 최초 입단 시 계약 조건은 K리그 선수 규정에 따른 신인 선수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

각 구단은 홈그로운 선수 1명씩 보유할 수 있다. /연합뉴스